"지방불교문화 발전 기여"

설날맞아 살펴본 향토 문화서

문화유적 총람·민속 구비문학 연구서등 내용 다양

매년 40여종 발간…목록작업으로 활용가치 높여야

우리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의 역사와 문화재가 어떠한지 제대로 살필 기회가 많지 않다. 자신의 뿌리를 찾아 고향으로 향하는 설날에 즈음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조명한 책들이 잇따라 출간되고 있어, 향토사와 지방문화재 이해에 도움을 주고 있다.

백제문화권의 역사와 문화재를 다룬 〈백제의 숨결〉(한국관광공사 刊) 〈한국의 폐사〉(한국문화사 刊) 〈충남지역문화유적 9집〉(백제문화개발연구원 刊) 〈백제역사〉(충남도 刊)를 비롯, 〈갑천의 문화유산〉(대전서구문화원 刊) 〈천안문화재도록〉(천안문화원 刊) 〈고인쇄문화 2집〉(청주고인쇄박물관 刊) 〈문화의 고장 부여〉(부여교육청 刊) 등이 그것이다.

지역 문화원과 자치단체, 지역박물관, 향토사가 등에 의해 발간되고 있는 이같은 향토사·향토문화연구서들은 지난해 6월 지자제 선거로 본격화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더욱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향토사와 지방문화재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지역불교사와 불교문화재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같은 움직임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불교사료와 유적·유물 등의 발굴 보존 및 관리의 활성화와 지방불교문화에 대한 관심고조 등 불교문화의 지방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7년 정부의 지방문화원에 대한 국고보조 시작과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회장 김택규 영남대명예교수) 결성으로 향토사 연구붐이 조성되면서 발행량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이같은 도서들은 매년 35~45종이 발간되고 있다.

지난 62년 발족한 전국문화원연합회(회장 이수홍)에 납본된 95년 향토사·문화재관련 도서들은 모두 42종에 이른다. 분야별로는 △문화유적총람등 문화재관련 도서가 15종으로 가장 많다. 이밖에 △시·군·읍·면지(誌)등 향토지가 9종 △민요·민담·설화등 구비문학연구서가 5종 △민속연구서가 4종 △지명지(地名誌)가 3종 △향토사논총이 2종 △기타 4종 등이다. 특히 문화재 총람 및 편람, 금석문·고문서 목록집 등 문화재관련 도서가 전체 발행도서의 약 36%로 나타나 지역문화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그러나 이같은 향토문화연구붐에도 불구하고 도서목록집의 부재등 개선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 대부분의 도서가 비매품인데다 한정된 수량으로 발간되다 보니 국립중앙도서관 등 공공기관에 납본되는 책이 적고, 이로 인해 불교학·미술사학자 등 불교계 및 관련학계가 활용할 길이 막혀있다는 사실이다.

전국문화원연합회 유장수 편집주간은 "조만간 향토사관련 서적의 목록화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늦게나마 활용의 길이 열리겠지만, 관련학계의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이 이들의 연구열을 높이고 유관(有關)연구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중요한 변수라는 것이 한결같은 지적이다.

김재경 기자

◇지방화시대를 맞아 향토사·문화재 관련도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정된 수량과 비매품으로 발간돼 널리 보급이 안되는 점이 아쉽다.

'과학자가 본 불교의 세계' 쓴 윤주억 교수

"불교 문명한계 극복 열쇠"

불교사상과 현대과학 유사성 입증

"불교철학은 자연철학 위에 치밀한 논리로 쌓아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과학시대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불교는 더욱 빛을 발하고 있지요."

반평생을 실험실에서 보낸 생화학자 윤주억교수(64·동국대 식품공학과)는 30여년간의 불교공부를 토대로 〈과학자가 본 불교의 세계〉(밀알 펴냄)를 펴내면서 "자신의 생명과학 연구의 기초가 된 자연관은 불교였다"고 말한다.

"40년에 가까운 연구활동과 불교공부를 접목하기 위해 책을 내게 됐다"는 윤교수는 불교가 과학시대에 던지는 의미를 '타리즉자리(他利卽自利: 남의 이익이 곧 자기의 이익)'라고 규정한다. 환경파괴·자원고갈·국제분쟁 등 과학문명의 한계를 극복해 줄 길잡이로 불교사상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교수가 불교를 '과학시대의 종교'로 보는 이유는 △유식(唯識)과 신경생리학상의 인식구조 △현대물리학상의 최소물질단위인 '쿼크'와 불교의 '극미(極微)' △불교 인식론과 컴퓨터 논리회로등 불교와 현대과학 이론과의 유사성이 상당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각자의 수준에 맞는 대기설법(對機說法)으로서의 기복불교도 그 나름의 존재이유를 갖는다"는 윤교수는 앞으로 쉽고 재미있는 불교 안내서를 집필할 예정이다. 〈재〉

'아비담팔건도론' 발간

동국역경원(원장 월운)은 새 한글대장경 〈아비담팔건도론〉과 〈대방광십륜경 外〉를 발간했다.

〈아비담팔건도론〉은 〈아비달마발지론〉의 다른 번역으로 모두 8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부학설 전반을 조직적으로 논술하고 있기 때문에 〈발지신론(發智身論)〉이라 불리며 옛부터 이 부파의 대표적인 논서로 존중돼 왔다. 〈대방광십륜경 외〉에는 〈대방광십륜경〉 〈보살지지경〉 〈무진의보살경〉 등 16경이 번역돼 있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기도	일타	효림
2	도가 본시 없는데 내가 무엇을 깨쳤겠나	이청	풍지
3	금강경 강의	무비	불광
4	예불하는 마음에 자비를	권영한	전원문화사
5	돌부처	이근후	여시아문
6	그 마음을 바꿔라	김재웅	용화
7	버리고 떠나기	법정	샘터
8	영원한 자유의 길	성철	장경각
9	나는 누구인가	마하리쉬	청하
10	금강경 이야기	법륜	정토

구입문의:(02)737-0695

명사추천 불서 100선

'신역 화엄경'

김규동 〈시인〉

삼라만상의 상의상존 일깨워

피안을 바라보는 마음 열어줘

최호씨가 역해한 〈신역 〈화엄경〉〉(홍신문화사 刊)은 장엄함 〈화엄경〉의 세계를 규모있게 축소시켜 전체의 흐름을 역사적인 위치에서 가늠하게 한다.

5년전에 읽은 이 책은 불교공부와 문학공부를 겸하기 위해 선택했으나 읽으면 읽을수록 문학적인 성격을 넘어 〈화엄경〉의 심오한 세계를 체험하게 만들었다. 역자는 역사성과 스토리를 지닌 〈화엄경〉의 구도정신을 불교의 핵심으로 파악해 다양한 고증과 함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풍부한 문학성을 지닌 시(詩)적 공간을 쉽고도 아름다운 언어로 열어제끼고 있다.

〈화엄경〉은 대승불교의 핵심 경전이다.

〈화엄경〉은 옛부터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을 나타낸 것이라고 한다. 부처님의 10대 제자들도 이 경의 법문(法文)을 듣고 모두 벙어리가 되고 귀머거리가 되었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전할 정도다.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을 전한 것이기에 한량없는 광명과 가이없는 환희를 간직한 생명이 넘쳐 흐르고 있는가 하면 그 표현이 다분히 상징적이어서 우리의 상상이 미치지 못할 정도로 신비스럽기만 하다.

따라서 이처럼 난해한 경을 쉽게 핵심을 놓치지 않고 풀이하고 있는 이책은 〈화엄경〉의 세계를 두려움 없이 접하려는 독자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화엄경〉 속에 펼쳐져 있는 세계관은 현상세계가 상호교섭하여 무한한 상호 연대관계를 갖는다는 사사무애(事事無碍)의 법계연기(法界緣起) 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진리를 근본바탕으로 할 때 삼라만상의 모든 사상(事象)은 서로 연관되어 걸림이 없고 부딪침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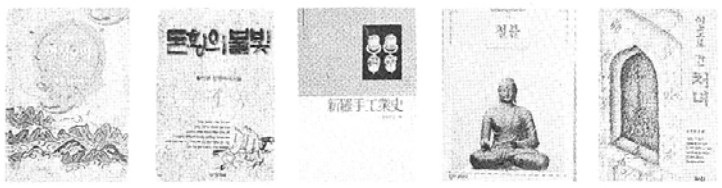
이같은 〈화엄경〉의 심오한 사상은 차안(此岸)을 넘어 피안(彼岸)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일깨우고 천성을 계발하는 자유로운 상상의 문을 열어주고 있다. 특히 인생의 경륜이 깊은 사람일수록 〈화엄경〉이 주는 메시지는 각별하게 다가온다.

영겁(永劫)을 초조함 없이 바라보는 시야를 길러줌으로써 마음의 위안과 인생을 정리하는 여유를 준다. 죽음을 외면하지 않기에 마음이 평화롭고 마음이 평화롭기에 삶이 허허롭지 않다. 깊이있는 삶은 세파에 흔들림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의 초목속에는 온 세상이 반영되어 있고, 한 순간 한 찰나에도 영원(永遠)이 깃들어 있다는 〈화엄경〉의 주장은 시공(時空)의 한계를 무한히 확장하는 광대한 법문이 아닐 수 없다. 모든 시간과 공간에 걸쳐 서로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없으므로 이 세상에 고립적이고 독존적인 존재란 하나도 없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는 곧 일체요, 일체는 곧 하나라는 역설적인 주장이 〈화엄경〉 전반을 관통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관에 입각해 구도자 즉, 보살의 수행도(修行道)를 자세히 그려내고 있는 이 책은 불교의 깊이와 향기를 가까이서 느끼게 하는 훌륭한 입문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새로나온 책



▲연선도인 1, 2(백운스님 지음)=서산대사의 스승인 한국 조계종의 6조 부용당(芙蓉堂) 영관선사(靈觀禪師)가 천민으로 태어나 견성오도하기까지의 생애 중, 행오선사에 의지하여 출가한 뒤 당대의 여러 선지식을 제접하고 정진하는 모습을 1, 2권의 소설에 담았다.〈우리출판, 각권5천원〉

▲돈황의 불빛 1, 2, 3(황인경 지음)=혜초스님과 고선지 장군, 백제유민 부용이 펼치는 꿈과 야망, 그들의 삶을 통해 역사의 한 줄기를 되돌아 본다. 〈소설 목민심서〉의 작가 황인경이 4년만에 내놓은 장편역사소설.

〈삼진기획, 각권 6천5백원〉

▲신라수공업사(박남수 지음)=신라 수공업의 실태를 관영·궁중·사원 수공업 등으로 세분해 논증하고, 신라의 중앙집권적 통치체제 확립과 수공업의 분화과정이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설명했다.

〈신서원, 1만2천원〉

▲철불(최성은·한석홍 지음)=철불은 통일신라 말부터 고려에 이르는 시기에 크게 유행한 점에 비추어 전환기 미술의 일면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빛깔있는 책들' 제178권.

〈대원사, 3천5백원〉

▲천년의 세월을 엮는 사람들(이윤수 지음)=전통을 잇는 34인 장인들의 삶을 그렸다. 지난 91년부터 94년까지 〈불일회보〉에 연재했던 '불교문화의 향기 찾기' 취재기.

〈한뜻, 6천원〉

▲지혜의 바다(임종삼 편저)=지혜(般若)는 노·병·사(老病死)의 바다를 건너는 굳건한 배요, 무명을 비추는 큰 등불이요, 번뇌의 나무를 치는 날랜 도끼다. 현대인을 위한 반야심경 에세이.

〈문학풍경, 6천원〉

▲21세기 과학의 포커스(고건 外 20명)=서울대교수 20인이 말하는 21세기 과학의 쟁점들. 청소년과 일반인을 위한 교양서. 〈사계절, 8천5백원〉

▲인도로 간 처녀(김수연 지음)=저자가 관광에서 시작해 인도의 성자들을 만나면서부터 깊어가는 '나를 찾는 여행'기. 〈차림, 6천5백원〉

불음가득, 법향가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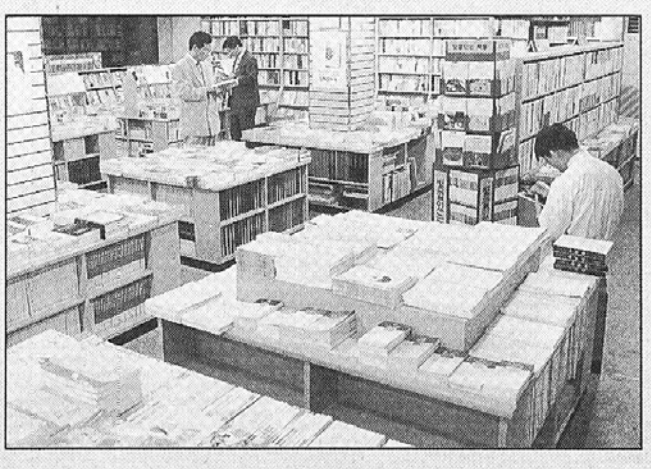
마음의 평화를 산다(?), 책방 여시아문에서라면 가능합니다

독자와 함께 하는 독서회원제

책방 여시아문의 회원이 되시면 언제든지 필요한 서적을 편리하게 구입하실 수 있으며 본 책방에서 발행하는 신간 안내 소식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책방 여시아문은 고객의 입장에서 책에 관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책방 여시아문이 주관하는 다양한 행사에도 회원 여러분을 최우선으로 모십니다.
회원가입은 책방에 비치된 신청서 및 전화, 팩스로 신청해 주십시오. 가입비는 무료입니다.

항상 독자를 찾아가는 통신 판매

지방에 계신 독자나 산사의 스님, 책방에 나오시기 어려운 분을 위해 통신 판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 주문은 전화,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송료는 책방 여시아문에서 부담합니다.



찾아오시려면

매월 발행하는 독자들의 귀와 눈

"책방 여시아문 소식지"

매월 15일 발행하는 여시아문 소식지는 불교 서적에 관한 최신 정보를 가득 담고 있습니다.

- 새로 나온 책—각종 불교서적 및 불교 관련 신간을 빠짐 없이 수록하였습니다.
- 독자가 뽑은 나의 불서—애독자와 함께 추천하는 불서
- 불교 출판 편집자가 뽑은 명저—불교서적 출판에 온갖 정성을 다하는 불교서적 전문 출판 편집자가 추천하는 불서
- 책방 여시아문이 뽑은 이달의 책—본 책방에서 양서라고 검증된 불서만 가려 뽑아 싣습니다.
- 불교 출판사를 찾아서—불교 출판 문화 발전에 항상 노력하고 있는 불교 출판사 탐방
- 베스트셀러 20선—책방 여시아문 월간 판매 집계 20선.
- 책방 여시아문 자세히 보기—독자 여러분께 보탬이 되고자 본 책방 소장 영인본, 희귀본, 절판본을 계속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 부처님 말씀은 사람과 사람을 잇는 가장 튼튼한 다리입니다. "

책방 여시아문에서는 '선물코너'를 따로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정성스럽게 고른 한 권의 불서로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 또는 벗들에게 한해 동안의 고마움을 전하십시오. (* 예쁘게 포장해 드립니다.)

책방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737-0695 / 팩스 737-0696